

특허청, 여성벤처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방안 논의

- 특허청, 여성벤처기업인들과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와 7.1(화) 14시, 팀스타운 S6(서울시 강남구)에서 여성벤처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벤처기업 현장의 지식재산 애로를 해소하고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방안을 도모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평균 업력이 9년 이상인 약 5천여개 여성벤처기업은 산업측면에서 제조업, S/W정보처리업,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업종이 76%에 달하고, 평균 12명을 고용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주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

* 여성벤처('24년 4,996개사) : 평균업력 9년, 평균종사자 12명, 수도권 64.7%

업종분포(%) : 제조업(53.8), 정보처리SW(18.5), 도소매(6.5), 연구개발서비스(3.7) 순

** 여성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유건수 : 평균 7.9건(특허 3.1 실용신안 0.03 디자인 1.7 상표 3.1)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벤처기업들은 ▲지식재산 역량 향상 교육 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AI·바이오 등 신산업·신기술분야에 대한 특허심사단축 등을 건의하였고, ▲특허권 이전 계약 및 연차료 납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 현장규제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성미숙 여성벤처협회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환경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성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여성벤처기업은 어려운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생태계 다양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여성벤처·스타트업들이 혁신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창출·보호하고,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자금조달과 성장해 나가도록 지식재산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특허청, 여성벤처기업 지식재산 간담회 개요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 부서	특허청	책임자	과 장	서창대 (042-481-5168)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효원 (042-481-8180)
	한국여성벤처협회	홍보관리자	팀 장	권성용 (02-3440-7460)



□ 간담회 개요

- **(추진목적)** 여성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기업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
- **(일시·장소)** '25.7.1.(화) 14:00~15:30 / 팁스타운 S6 (서울 강남)
- **(주요내용)** 여성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강화와 글로벌 진출
- **(참 석 자)** 특허청, 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벤처기업 관계자 등

□ 주요 참석자

- **(특허청)** 특허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주요 정책부서* 과장
* 산업재산정책과, 산업재산정보정책과, 산업재산분쟁대응과, 특허심사총괄과 등
- **(여성벤처)** 성미숙 협회장, 이시희 상근부회장, 주요기업 대표 등 12명
* 여성벤처기업 권익보호, 정책개선 활동, 상호교류 등을 통한 경제적 지위향상 및 여성벤처기업 발굴·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98.11, 중소벤처기업부 허가)

□ 진행순서(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 ~ 14:10	(10")	사전 환담	회의실(2F)
14:10 ~ 14:15	(5")	개회 및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4:15 ~ 14:20	(5")	인사말씀	
14:20 ~ 14:25	(5")	참석자 인사	특허청·협회
14:25 ~ 15:25	(60")	간담회 진행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세미나실
15:25 ~ 15:30	(5")	마무리 말씀	특허청·협회